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의 결정요인*

장성수 · 이현남

한양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정의에 대한 도덕적 관심이 이타행동에 기저하는 중요한 동기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움행동에 정의와 관련된 심리적 과정이 개입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의 판단의 심리적 기제로 제안하였던 두 심리적 조망, 즉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도움행동에 관련시켜 이해하려 하였다. 두 조망의 특성을 고찰하여 "공정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과 "공정 당사자와의 친숙도"를 공정조망과 인정조망 각각에서의 도움행동의 주요결정요인으로 하여 다음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1) 공정조망에서는 친숙도에 관계없이 공정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도움행동의 주요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2) 인정조망에서는 소원대상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정도가 도움행동의 주요결정요인이 될 것이나, 친숙대상에 대해서는 책임요인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상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가상적 인정과 공정 갈등상황에서 인정보다 공정을 중시하는 피험자와 공정보다 인정을 중시하는 피험자들을 선발하고, 가상적 도움필요상황 속에 공정에 처한 당사자의 책임과 친숙도를 조작하여 조망(공정, 인정) X 친숙도(친근, 소원) X 책임(유, 무)의 집단간 요인설계를 하여 도움 당위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예언한 3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 가설들이 지지됨으로써 두 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정의(justice)에 대한 도덕적 관심이 이타행동에 기저하는 유일한 동기가 아닐지라도 주요 동기중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타행동은 정의에 관련된 심리적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을 장성수, 이수원과 정진관(인쇄증)이 정의판단의 심리적 기제로서 제안한 두 종류의 심리

적 조망(perspectives), 즉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에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의판단에 서의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고찰하고, 이를 도움행동과 관련시킴으로써 두 조망에 따라 도움행동의 결정요인이 다르게 됨을 검토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 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이 이질적이며 각각의 고유한 한계성이 있음을 확인하려 하였다.

* 본 연구는 전기 필자가 1988 학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임.

정의 판단의 두 조망 : 공정조망과 인정조망
 정의의 본질적 문제는 정의로와야함에는 모든 사

사람들이 합의하고, 이를 추구하지만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정의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회현실에서 개인 또는 집단간의 대립과 분쟁이 야기되며, 크게는 이념적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판단의 주관성을 글기시하는 학문세계에서조차 나타나는 바, 역사적으로 볼 때 분배정의의 문제에 대한 많은 철학자들의 입장과 논쟁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정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 개입하여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심리적 구성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정의에 대한 사변적, 규범적 접근과 달리, 사실적 경험적 수준에서의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정의는 있는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대로 있는 것이다.

상기한 맥락에서 장성수등(인쇄중)은 사회 문화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서, 두 종류의 심리적 조망, 즉 긍정조망과 부정조망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심리적 조망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내의 해석적 배경(interpretive background)을 의미한다. Handeide(1985)는 이를 조망, 해석적 배경, 해석적 입장(interpretive position), 또는 암묵적 배경(latent 또는 tacit background)등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그는 이 용어중에 공간적 은유인 조망이란 용어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조망확장과 조망축소, 상위조망과 하위조망으로 개념의 추상화, 문제해결의 심리적 과정등을 설명하였다. 장성수 등(인쇄중)은 '조망'이 상기한 바와 같은 설명적 유용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정의 판단의 차이를 정의에 대한 심리적 시각의 차이로 표현하는 공간적 은유가 적절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의미는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취하는 조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정의의 의미를 다르게 하는 조망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장성수 등(인쇄중)은 분배 또는 교환이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분배 또는 교환에 관련된 개인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가정에서, 상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인간관계의 특성에서 찾아보려 하였다. 장성수 등(인쇄중)은 이러한 인간 관계의 특성을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특성 차원은 여러 수준, 즉 사회문화적 수준, 개인적 수준 그리고 동일 개인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내 수준, 모두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비록 수준에 따라, 연구영역 또는 연구자에 따라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개인지향은 집단(집단 구성원)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의 독특성, 자존감을 강조하는 관계이며, 집합 지향은 개인보다는 집단(집단구성원)을 중시하고, 상호유대감과 동질성, 공동감(we-ness)을 강조하는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의 특성에 따라 분배 원칙의 선호가 달라지는 바, 개인 지향에서는 형평원칙(equity principle)이, 그리고 집합지향에서는 균등원칙(equality principle) 또는 필요원칙(need principle)이 선호됨을 개관하여 이러한 인간관계의 특성이 분배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하였다.

한편 장성수 등(인쇄중)은 비교적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주로 Clark와 그의 동료들)이 인간관계의 두 유형으로 제안하는 교환적관계(exchange relation)와 공유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가, 상기한 개인 지향적 인간관계와 집합주의적 인간관계 각각에서의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임을 논하였다. 즉 Clark와 Mills(1979), Mills 와 Clark(1982)는 교환적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없으며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어야 하는 호혜성(reciprocity), 그리고 투입에 비례하여 이득을 분배하는 형평성에 입각한 관계로 규정한다. 반면에 공유적 관계는 상대방의 안녕(welfare)에 특별한 책임과 관심을 가지며, 호혜원칙에 따르지 않고 주고 받으며, 필요원칙을 분배원칙으로 하는 것

으로 특징화된다. 이렇게 볼 때 전자는 이미 언급한 개인지향적 관계에서, 그리고 후자는 집합지향적 관계에서의 인간 상호작용의 특징이 될 수 있음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상기한 맥락에서 장성수 등(인쇄중)은 개인 지향적, 교환적 관계에서 증시되는 것은 교환의 호혜성, 분배의 형평성 즉 공정성이 되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의판단의 기준은 공정성이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집합지향적, 공유적 관계에서는 공정성이 증시되지 않고, 상대방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인정이 중요가치가 될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서는 정의판단의 기준이 인정이 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인들이 경의를 판단하는 두 형태의 보편적인 가치로 공정과 인정을 상정하여, 인정보다 공정을 증시하는, 즉 공정조망을 갖는 사람들은 인정보다는 공정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정의롭다고 판단하며, 공정보다는 인정을 증시하는 인정조망을 갖는 사람들은 공정성 보다는 인정정원칙에 기초하여 정의를 판단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조망이 각각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에 상응되어 있음을 밝혔다. 요컨대 이들의 연구에서 두 심리적 조망에 따라 정의판단이 다르게 되며, 두 조망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의 결정요인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도움행동의 주요 동기중의 하나를 정의에 대한 도덕적 관심으로 본다면(예, Bar-Tal & Raviv, 1982), 도움행동을 정의와 관련된 심리적 과정에 입각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공정성과 인정이 정의판단에 있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기준이 된다면 두 심리적 조망은 반드시 도움행동과 관련되어야만 하고, 또한 두 조망에 기초하는 심리적 과정들이 서로 다르다면 각각의 조망에 더한 도움행동들도 서로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망에서 도움행동을 규제하는 요인, 즉 도움행동의 결

정요인이 다름을 실험과 동시에, 각 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의 한계성을 확인함으로써 두 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의 이질성을 이해하려 하였다.

우선 공정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정원칙 또는 공정규범과 도움행동간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도움행동을 규범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두 형태의 규범이 제기되어 왔다. 그 하나는 "도움의 규범(norms of aids)"(Karylowski, 1982) 또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Berkowitz, 1972)으로, 자신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규범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정의 규범으로서 "호혜성 규범(norms of reciprocity)"(Gouldner, 1960) 또는 "정의규범(norms of justic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Gouldner(1960)는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 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며,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호혜성 규범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는 만큼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 주어야 한다는 호혜적 규범에서 이탈되면 심리적 불편감이 야기되고 이를 해소하도록 동기화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호혜적 도움행동들이 밝혀졌다(예, Berkowitz & Daniel, 1964; Gergen, Ellesworth, Naslach & Spiel, 1975).

한편 분배정의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공정성 규범이 핵심적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Homans(1961)의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출발하여 Adams(1965)를 거쳐 Walster, Walster 및 Berscheid(1973)에 이어져 체계화된 형평이론은 형평원칙을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유일한 정의규범으로 제안하여 불형평 상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과정과 이에 따른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정의를 형평이란 용어로 대체하고 형평관계를 개인의 투입(input) 또는 투자(investment)에 비례하여 성과가 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이는 앞서의 호혜성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 즉, 이 이론에서 사용하는 투입 또는 투자는 개인이 교환 또는 분배의 맥

락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성과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어야 한다는 호혜적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이론의 핵심은 불형평 조건에서 심리적으로 불쾌한 긴장(distress)이 야기되어 형평을 회복하려는 여러 형태의 행동이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Walster 등(1973)은 인간의 제반 관계, 예컨대 거래적 관계(business relationship), 친밀관계(intimate relationship), 도움관계 등에서의 사회적 행동을 형평이론으로 설명하여, 기존의 소규모 이론으로써 설명되었던 행동을 형평이론으로 재해석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도움행동은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한 행동일 따름이다. 요컨대 도움행동의 동기적 요인은 형평규범 즉 공정성규범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자신이 관련된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도움행동은 비록 도움에 대한 댓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이타행동은 아닐 지라도 적어도 타인이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제삼자인 자신에게 있을 때라도 도와주는 행동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이 손해를 당하게 되면 내면화된 호혜적 규범에 따라 손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 될지는 모르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정의에 대한 도덕적 관심에서 비롯된 도움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참여한 교환 또는 분배상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형평 이론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관계에서의 불형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타인들간에서의 불형평을 목격하여도 불쾌한 긴장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려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Walster et al., 1978, pp. 56-6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형평규범은 비록 그 뿌리는 이기적 관심에 있다 할지라도, 호혜성을 넘어선 사회적 정의에 대한 도덕적 관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도움행동의 기저에는 이러한 공정규범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정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Lerner(1975)가 제안한 "정의세계 가설(just world hypothesis)"로써 잘 설명된다. 그는 형평이론과는 달리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이 한 바대로 보답을 받게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되는 현상을, 사람들이 갖는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상기한 형평이론이나 정의세계 가설에 입각하여 볼 때, 공정규범에 입각한 도움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은 상대방이 처한 곤경이 그 사람에게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즉 곤경에 처한 곤경 당사자의 책임이 도움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형평이론으로 볼 때,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잘못된 곤경이라는 부정적 성과에 대한 당사자의 투입요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곤경은 불형평한 것으로 지각되고, 따라서 불형평 해소를 위한 도움 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공정 규범에 입각한 도움은 곤경이 그 당사자에게 마땅한 것이 아닐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공정조망을 취하는 조건에서만 상기한 공정규범이 적용됨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공정규범은 모든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의원칙이 아니라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이 교환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개인 지향적인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정의원칙일 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또 하나의 심리적 조망, 즉 인정조망에서는 공정규범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범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인정조망은 집단, 보다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속하는 집단구성원을 증시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적 관계에서 취하게 되는 정의판단의 심리적 배경인 것이다. 이러한 공유적 관계에서는 호혜원칙 또는 형평원칙이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몇몇의 증거들이 있다.

예컨대, Clark와 Mills의 연구(1979)에서 자신이 도와준 상대방이 즉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은 교환적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공유적 관계에

서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피험자들(남자대학생)이 신입 여학생(실험 동조자)과 함께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점수(학과목 이수료 요구된 특별과제점수)를 받게 하였다. 이 때 상대방 여학생이 실험에 참가한 목적을 그 대학이 낮설기 때문에 친구를 얻기 위한 것으로 소개된 조건과, 실험이 끝난 후 그녀의 남편의 차로 집으로 가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실험에 참가한 것으로 소개된 조건을 두어 전자를 공유적 관계로서, 후자를 교환적 관계로서 조작하였다. 그리고 과제 수행과정에서 피험자들이 상대방 여학생을 도와주도록 유도한 후, 여학생이 이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만 한 조건과, 인사와 함께 여학생 자신이 얻은 일부 점수를 도움의 댓가로 보답한 조건을 조작하였다. 그 후 종속변인으로서 여학생에 대한 인상을 기술하게 하여 그녀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률 측정한 결과, 피험자들이 교환적 관계를 원하도록 유도한 조건에서는 보답을 하지 않은 여학생보다 보답을 한 여학생을 좋아 하였다. 반면에 공유적 관계를 원하도록 유도된 조건(여학생은 매력적이고 친절하였음)에서는 보답을 한 여학생 보다 보답을 하지 않은(말로만 보답한) 여학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Clark & Mills, 1979)은 이 결과를 보답의 효과가 개인간의 관계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교환관계에서 도움과 보답의 상응성(comparability)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Mills & Clark, 1982). 도움에 상응하는 보답은 부담감을 해소하지만 비상응적 보답은 그러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응성의 효과도 교환적 관계와 공유적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Clark(1981)의 연구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수행된 3개의 실험 중, 2개의 실험에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먼저 도움을 주고, 그 후 다른 한 사람이 먼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가상적 상황을 기술한 문장을 보여주었다. 이 때 한 조건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상응되도록 하였고(예, 한 사람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그 후 다른 사람이 점심식사를 제공함), 다른 한 조건에서는 상응되지 않도록 하였다(예, 점심식사와 집까지 차를 태워주는 것). 피험자들에게 이를 읽게 한 후, 두 사람들간의 우정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두 실험 모두에서 상응적 조건보다는 비상응적 조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보다 친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 하나의 실험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던 바, 비상응적 조건에서 보다 상응조건에서는 나중의 도움이 먼저의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지각되었으며, 비상응 조건을 "우정의 시작"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보답에 대한 요구(request) 역시 교환적 관계와 공유적 관계에서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 Clark와 Mills(1979)는 또 다른 연구에서, 앞서 보상에 대한 보답의 효과를 다른 실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교환적 관계와 공유적 관계를 조작한 후(단, 앞서의 실험과는 달리 피험자들이 여학생들이었다), 실험 동조자가 먼저 과제수행을 끝마치게 하고 4개의 조건을 조작하였다. 그 조건 중의 하나에서 실험동조자가 피험자를 도와주게 하고 그 후 실험동조자가 피험자에게 보답을 요구한 조건과 요구하지 않은 조건을 조작하였다. 그 후, 피험자들에게 실험동조자에 대한 호오도를 평정하게 한 결과, 교환적 관계에서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은 실험 동조자보다 보답을 요구한 실험동조자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유적 관계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사람들이 공유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형성하려고 할 때는 공정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정조망을 갖는 사람들의 도움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은 곤경에 대한 곤경당사자의 책임소재가 되지만, 공유적 관계에서 중시되는 인정을 조망으로 갖는 사람들에서는 책임소재가 도움결정요인이 되지 않을 것을 가설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정조망에서 도움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앞서의 논의를 보면, 인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던 그 사람의 잘못어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도와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준정이 당사자의 잘못 때문이라 할지라도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인정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은 앞서의 공정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의 한계성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정에 의한 도움행동의 제한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인정이 중시되는 인간관계는 공유적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인정은 기존의 공유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공유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조건에서 중시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공유적 관계는 Clark와 Mills(1979)가 언급하였듯이 자신과 인간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안녕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책임을 갖는 관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의 안녕에 다른 사람 보다 특별한 책임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교환적 관계와 구분이 된다. 따라서 잘못이 있을지라도 도와준다는 인정에 의한 도움행동은, 공유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안녕에 대한 "특별한 책임 또는 관심" 그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유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형성하려는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는 상대방에게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공유적 관계를 접합지향에서의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인지향과 접합지향의 맥락에서 볼 때, 접합지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신과 타인을 "공물체(we-ness)"로 지각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간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때로, 가져물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we)"를 일컫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닌 것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합지향이 되면 집단간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내집단 선호 내지는 외집단 차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Sherif, 1961; Tajfel, 1976; Tajfel & Turner, 1979; Turner, Brown & Tajfel, 1979).

"우리"라는 공유적 관계를 강조하면 필수적 타인을 차별적으로 대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인정을 중시하는 인정조망에서는 공유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려 할 것임으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할 것으로 예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움행동에 있어서 인정 조망을 갖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임으로 공유적 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도와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당사자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도와준다는 인정조망의 특성은 공유적 관계에 제한된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인정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이 자신과의 인간관계에 제한을 받는다는 한계성은 공정조망에서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철저한 공정원칙은 공정 당사자가 잘못하여 그 댓가로서 받게되는 곤경이라면 어느 누구든 도와줄 필요가 없으며, 만면에 당사자가 해결수 없는 곤경, 즉 책임이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와 주려한다는 점에서 비개인적(impersonal)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두 심리적 조망에서의 도움행동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공정조망 가설 : 공정조망에서는, 전속도에 관계없이 곤경에 처한 당사자의 책임이 도움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인정조망 가설 : 인정조망에서는,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곤경에 처한 당사자의 책임정도가 도움행동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것이나, 친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에 관계없이 도우려 할 것이다.

상기한 가설에 밝혀된 두 조망 각각에서의 도움행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공정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은 공정 당사자와의 전속도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곤경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조건에 국한된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정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은 곤경당사자의

잘못이 없을지라도 도와줌으로써 상기한 공정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의 한계성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정조망에서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도움행동은 곤경당사자와의 인간관계에 따른 제한을 받는바, 천숙한 사람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도움의 한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정의판단을 달리하는 심리적 기제로써 제안한 두 심리적 조망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상기한 맥락에서 확인하려 하였다.

연구 방법

피험자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1989년 11월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문과대학의 200명의 대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중 이 연구에서 규정한 인정조망과 공정조망에 해당하는 108명의 피험자들만이 선택되어 분석되었다.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인정과 공정이 갈등되는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기술된 설문지를 2개 집단에 동시에 배부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 중, 심리적 조망은 제시된 인정과 공정의 갈등상황에서 측정되었다. 그리고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과 천숙도 제시된 동일한 도움필요 상황에서 조작되었다. 그러므로, 사용된 설문지는 당사자의 책임(유, 무)과 천숙도(천, 소)에 따른 4개 종류가 있었으며, 이를 무선적으로 배분하여 각 조건에 피험자가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망(인정, 공정) $\times$ 책임(유, 무) $\times$ 천숙도(천, 소)의 3원 피험자간 요인설계로 수행되었으며, 종속변인은 제시된 도움필요자를 마땅히 도와주어야 하는 도움당위성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변인 조작과 측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조망: 인정조망과 공정조망

인정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갈등적인 상황에서 공정성을 중시하지 않고 인정만을 중시하는 경우를 인정조망으로, 인정은 중시하지 않고 공정성만을 중시하는 경우를 공정조망으로 하였다. 인정과 공정 조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에 기술된 갈등적인 가상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교통경찰이 눈감아 주는 것은?"과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교통경찰이 적발하여 딱지를 때는 것은?"의 두가지 상황을 주었다. 그리고 특인하는 경우와 적발하는 경우의 각각에 대하여 6개의 형용사를 주어 7점 척도상에서 응답토록 하였다. 이 때 사용되었던 6개의 형용사는 장성수 등(인쇄중)이 요인분석을 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대어로 제시되었다. "불인정하다 - 인정있다" "무원칙적이다 - 원칙적이다" "냉혹하다 - 관대하다" "비합리적이다 - 합리적이다" "비인간적이다 - 인간적이다" "불공정하다 - 공정하다". 선행 연구(장성수 등, 인쇄중)에서 요인분석 결과, 이들 6개의 형용사들이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됨이 밝혀졌다. 즉 인정있다, 관대하다, 인간적이다의 3개의 형용사가 인정요인으로, 원칙적이다, 합리적이다, 공정하다는 3개 형용사가 공정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6개의 형용사들이 선행연구(장성수 등, 인쇄중)의 결과에서처럼 인정과 공정의 상호 독립적인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재검토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기술된 2가지 상황, 즉 특인상황과 적발상황 각각에서, 사용된 6개의 형용사의 측정치에 대해 주성분 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하고 varimax절차에 따른 직교회전을 통해 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특인상황과 적발 상황 모

두에서 인정있다, 관대하다, 인간적이다가 하나의 요인으로, 그리고 원칙적이다, 합리적이다, 공정하다가 독립적인 또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인정요인에 포함된 3개의 각 행동사에서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인정점수로 하고, 공정요인에 포함된 3개의 각 행동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합산하여 공정점수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확인하는 상황에서 얻어진 인정점수에서 적발하는 상황에서 얻어진 인정점수를 뺀 차이값을 산출하고, 적발하는 상황에서 얻어진 공정점수에서 확인하는 상황에서 얻어진 공정점수를 뺀 차이값을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인정점수의 차이값은 적발상황과 확인상황을 인정차원에서 얼마나 변별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고, 공정점수의 차이 값은 적발상황과 확인상황을 공정차원에서 얼마나 변별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이값이 크면 둘수록 개인이 그 차원을 증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장성수 등, 인쇄종)에서와 같이 인정보다는 공정을 증시하는 것을 공정조망으로, 그리고 공정보다는 인정을 증시하는 것을 인정조망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상기한 절차를 통해 산출한 공정변별점수와 인정변별점수 각각의 분포에서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변별 점수가 낮고 공정변별점수가 높은 피험자들을 공정조망집단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와 반대인 인정변별점수가 높고 공정변별점수가 낮은 피험자들을 인정조망집단

으로 하여 이 두 집단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책임소재와 친숙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곤경에 대한 책임소재, 즉 곤경에 대한 곤경당사자의 책임과 곤경 당사자와 피험자간의 친숙도는 설문지에 제시된 가상적 도움필요 상황의 내용으로 조작하였다. "어떤 학생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 나오지 못해 강의를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런 중간고사 시험은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학생에게 강의 노트를 갖다 주지 않으면 이 과목은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졸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책임요인은 상기한 곤경상황, 즉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강의노트가 필요하게 된 상황의 원인으로 조작되었던 바, 곤경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정보를 주거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었다는 정보를 주어 조작하였다. 한편 친숙도는 곤경당사자가 친구인 조건과 모르는 학생인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중속변인

본 연구에서의 주요 중속변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도움당위성 판단이었다. 도움당위성 판단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학생에게 얼마나

표 1. 인정과 공정조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6개 행동사의 요인분석 결과

	적발상황		확인상황	
	요인 1 (3.54)	요인 2 (1.40)	요인 1 (2.95)	요인 2 (1.03)*
1. 인정있다	0.88	0.13	0.83	0.11
2. 관대하다	0.87	0.09	0.82	-0.08
3. 인간적이다	0.76	0.32	0.80	0.08
4. 원칙적이다	0.09	0.79	-0.09	0.83
5. 합리적이다	0.19	0.85	0.12	0.88
6. 공정하다	0.12	0.83	0.19	0.85

* 괄호안의 수치는 요인의 Eigen value 임

강의노트를 갖다 주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전혀 생각치 않는다면 0, 매우 생각한다면 6으로 한 7점 척도상에서 측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망, 책임소재 및 친숙도에 따라 피험자들이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판단한 도움당위성의 평균을 정리하던 표 2와 같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인정과 공정조망에 따른 친숙도 및 책임소재별 도움당위성 판단 평균(S.D)

친숙도	책임소재*	조 망	
		인 정	공 정
친근	유	5.50(0.97) (n=16)	4.55(1.15) (n=16)
	무	5.54(0.68) (n=10)	5.75(0.44) (n=20)
소원	유	2.38(1.19) (n=15)	3.33(1.03) (n= 5)
	무	3.67(1.12) (n=10)	3.79(1.52) (n=14)

* 책임소재는 곤경에 처할 책임이 곤경당사자에게 있는지의 여부임

변량분석 결과, 책임소재와 친숙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나(표 3 참조). 표 2에서 책임소재에 따른 평균을 산출해 보면 책임이 있는 조건에서는 4.16이었고 책임이 없는 조건에서는 4.85로 나타나, 전자보다 후자의 도움당위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피험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을 때(싸움을 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보다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에 당연히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인정과 공정조망에 따른 친숙도 및 책임소재별 도움당위성 판단 평균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책임(A)	16.88	1	16.88	14.66**
친숙도(B)	99.09	1	99.09	88.04**
조망(C)	0.07	1	0.07	0.96
A X B	0.27	1	0.27	0.23
A X C	0.87	1	0.87	0.75
B X C	4.37	1	4.37	3.80*
A X B X C	6.76	1	6.76	5.87*
오차	100.19	87	1.15	

* $p < .05$, ** $p < .01$

한편 곤경에 처한 사람과 피험자와의 친숙도에 따라 도움당위성 판단의 평균을 산출해 보면, 피험자와 친한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당연히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도움 당위성 평균은 5.34이었고, 전혀 모르는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움 당위성 평균이 3.92이었다. 이 결과는 낯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보다 친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당연히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친숙도와 조망의 2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F = 3.80$, $df = 1/87$, $p < .05$), 상기한 친숙도 효과가 조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친숙도와 조망별로 도움당위성 평균을 산출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정조망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의 친숙과 소원조건간의 도움당위성 판단 평균의 차이가(각각 5.52, 3.02) 인정조망을 갖고 있는 집단의 그것보다(각각 5.16, 3.56)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원한 사람보다 친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공정조망에서보다 인정조망에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조망 X 친숙도 X 책임소재의 3원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하여($F = 5.87$, $df = 1/87$, $p < .05$), 상기한 조망과 친숙의 상호작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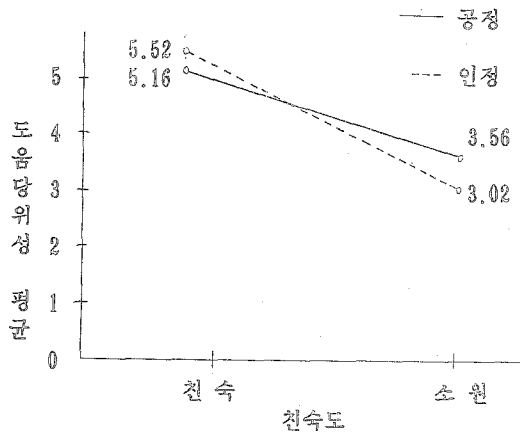


그림 1. 조망 및 전속도별 도움당위성 판단 평균

책임소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3원상호작용을 책임소재별로 보면 책임이 없는 조건에서는 공정조망에서의 전속과 소원간의 도움당위성 판단 평균의 차이(각각 5.75, 3.79)와 인정조망에서의 그것(전속 5.54, 소원 3.67)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조건(책임이 없는 조건)에서의 상기한 조망과 전속도와의 단순2원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31$, $df=1/87$). 즉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소원한 사람보다 친한 사람을 도와 주려는 편파성이 조망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조건에서는 조망에 따라 전속도의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이 조건에서는 공정조망에서의 전속과 소원조건간의 차이(각각 평균 4.56, 3.33)보다 인정조망에서의 그것(각각 평균 5.50, 2.38)이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단순2원상호작용: $F=8.50$, $df=1/87$, $p<.01$). 즉 당사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원한 사람보다 전속한 사람을 도우려는 경향이 공정조망에서보다 인정조망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편 3원상호작용의 내용을 공정조망과 인정조망 각각에서 전속도와 책임소재와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 조망집단에서는 도움당위성

판단에 대한 전속도 X 책임소재의 단순2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5.75$, $df=1/87$, $p<.05$). 즉, 친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곤경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각각 평균 5.50, 5.54),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을 때보다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 도움당위성 판단의 평균이 높았다(각각 평균 2.38, 3.67). 따라서 인정 조망을 갖게 되면 친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곤경에 대한 책임이 있던 없던 책임을 따지지 않아 도움당위성 판단에 차이가 없으나, 소원할 때는 책임을 따져 책임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판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정조망집단에서는 전속도 X 책임소재의 단순2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F=1.34$, $df=1/87$). 친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조건에서는 도움당위성 판단의 평균이 4.56이었고,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조건에서는 도움당위성 평균이 5.75이었다. 그리고 소원한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곤경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조건에서의 도움당위성 평균은 3.33이었고 책임이 당사자에게 없는 조건에서의 도움당위성 평균은 3.79이었다. 따라서 공정조망을 갖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친근한 경우는 소원한 경우는 곤경에 처하게된 책임유무를 따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판단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을 개인에 따라 정의판단을 달리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로 제안된 두 심리적 조망, 즉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에 관련하여 이해하려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 조망에 따라 도움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를 것임을 가설화하고 이를 검증하려 하였다. 여기에서는 분석된 결과들을 가설과 관

런하여 고찰함으로써 두 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 비추어 논의하여 필요한 후속 연구문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 책임소재와 친숙도의 주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책임소재: $F=16.88$, $df=1/87$, $p<.01$; 친숙도, $F=88.04$, $df=1/87$, $p<.01$). 즉, 소원한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을, 그리고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있을때보다 책임이 없을 때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요인이 도움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친숙도 요인은 조망과 상호작용을 하여($F=3.80$, $df=1/87$, $p<.05$), 친한 사람을 소원한 사람보다 더 도와주려는 경향이 공정조망(각각 평균 5.16, 3.56)보다 인정조망(각각 평균 5.52, 3.02)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그림 1참조).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에서 예언된다. 공정 조망에서는 친숙도에 관계없이 책임소재에 따라 도와주려 하는 반면, 인정조망에서는 친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달리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도와 주려 하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가설은 분석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조망 X 친숙도 X 책임의 3원 상호작용에서 지지된다($F=5.87$, $df=1/87$, $p<.05$).

3원 상호작용의 내용을 조망별로 보면 공정조망에서는 비록 소원한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을 더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친숙한 사람에서의 책임유무에 따른 차이(각각 평균 4.56, 3.33)와 소원한 사람에서의 책임유무에 따른 차이(각각 평균 5.75, 3.79)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단순 2원상호작용, $F=1.34$, $df=1/87$, n.s.). 이 결과는 공정조망에 대한 가설, 즉 공정조망에서는 친숙도에 관계 없이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도움행동의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인정조망에서는 친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책임유 평균, 5.50; 책임무 평균, 5.54), 소원한 사람

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때보다 책임이 없을 때에 더 도와주려하여(각각 평균, 2.38, 3.67) 친숙도와 책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단순 2원상호작용: $F=5.75$, $df=1/87$, $p<.05$). 이 결과는 인정조망에 대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두 조망에 대한 가설 모두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도움행동의 결정요인, 즉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과 곤경 당사자와의 친숙도의 효과를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도움을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바, 상기한 결과에서 나타난 두 조망에서의 도움행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공정조망에서는 곤경에 대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제한하는 반면에, 당사자와의 친숙도에 따라 도움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인정조망에서는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할지라도 도와주는 바, 공정조망에서와 같이 책임요인에 따른 도움의 제한성이 없으나 이러한 도움은 친숙한 사람에게 국한 된다는 점에서 친숙도에 따른 제한성이 있다.

특히 인정조망에서 나타나는 친숙도에 따른 도움의 차별현상은 결과에서 나타난 3원 상호작용을 곤경에 대한 책임소재별로 나누어 각각에서 나타나는 조망과 친숙도의 상호 작용을 검토해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책임이 없는 조건, 즉 곤경에 처한 당사자가 잘못이 없는 조건에서는 인정조망과 공정조망 모두에서 소원한 대상보다 친근한 대상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친숙도에 따른 도움차별의 정도는 두 조망 모두에서 유사하여(표 2 참조), 이 조건내에서의 조망 X 친숙도의 단순 2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0.31$, $df=1/87$). 그러나 책임이 있는 조건, 즉 당사자가 잘못하여 곤경에 처한 조건에서는 공정조망보다 인정조망에서 친숙도에 따른 도움차별이 크게 나타나 이 조건에서는 조망 X 친숙도의 단순 2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8.50$, $df=1/87$, $p<.01$). 따라서 친숙도의 효과는 곤경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결과 자

제가 인정조망의 고유성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써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정에 내포된 너그러운 또는 관대함이라는 의미는 타인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묵인 또는 용서한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 도와 준다는 것은 관대하다는 의미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곤경당사자가 곤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건에서 인정조망 피험자들이 공정조망의 피험자들보다 더욱 도와주게 되고, 이 때문에 공정조망에서보다 인정조망에서 전속도에 따른 도움결정의 차이가 크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흥미있는 사실은 인정조망을 갖게 되면 공정조망을 취했을 때보다 전한 사람에 대해 더욱 너그럽게 도와주려 할 뿐만 아니라,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덜 도와주려 한다는 점이다. 즉 표 3에서 책임이 있는 조건을 볼 때, 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조망에서보다 인정조망에서 더욱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각각 평균, 4.56, 6.50),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단순 주효과 $F=6.11$, $df=1/87$, $p<.05$). 그러나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조망보다 인정조망에서 덜 도와주려는 것으로 나타나(각각 평균, 3.33, 3.38), 비록 그 차이가 5%수준에는 다소 미달하였지만 뚜렷한 감소 경향성을 보였다(단순 주효과 $F=3.24$, $df=1/87$, $p<.10$). 요컨대, 인정조망은 공정조망에 비하여 전한 사람에게는 보다 너그럽게 대하는 반면에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냉엄하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정 조망의 편파성은 비록 영역을 달리하지만 개인주의 및 집합주의와 관련하여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분배행동을 고찰한 Leung과 Bond(1984)의 연구 결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 내집단에 대해서는 집합주의 문화권 사람들(중국인)은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미국인)보다 균등원칙을 선호하지만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더욱 형평원칙을 선호함을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집합주의 문

화에서는 집단내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을 더욱 추구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논하였다.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은 형평이론으로 보면 곤경이라는 부적 성과에 상응되는 투입 요인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형평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전속한 사람을 내집단 구성원으로, 그리고 소원한 사람을 외집단 구성원으로 개념화하고 인정조망과 공정조망의 조건을 개인지향과 집단지향으로 규정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Leung과 Bond(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단간 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던 바, 집단지향이 되면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들간의 보상(reward)의 차이를 극대화하려 한다(Sherif, 1961; Tajfel, 1978; Tajfel & Turner, 1979; Turner, Brown & Tajfel, 1979). 본 연구에서 책임조건에서 나타난 인정조망에서의 전속도에 따른 차별적 도움은 집합지향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신포드를 추후 연구에서 검토할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인정을 증식하는 사람일수록 소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을 증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인정조망은 내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공정보다는 인정을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두 조망은 실험적인 처치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인정과 공정이 갈등되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에 편감한가로 측정된 것이었다. 이 때 상황속의 곤경에 처한 사람을 친구의 노부모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애당초 자신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상을 전제로 하여 측정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속도와 관련된 인정조망의 편파적 도움결정현상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소원한 사람에까지도 인정을 증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망에 기저하는 심리적 과정은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인정조망에서의 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응서와 너그
 러움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
 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이지 않은 인정조망에 대한 연
 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입장
 에서 보면 공유적 관계, 즉 집합적 "우리" 라는 특
 별한 관계속에서 타인의 안녕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배려, 잘못했을지라도 도와 주는 인정이 성립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정의 편파성이 오히려 자연
 스러운 심리적 현상일 수 있으며, 범예적인 인정은
 결국 내집단 또는 공유적 관계의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개념이 없는 개인지향
 적, 교환적 관계에서는 호혜성을 넘어서 도움이나
 책임소재를 초월한 도움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라는 내집단의 범위가 문제일 것이다.

도움행동을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도
 움행동을 이해, 예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처한 사
 회문화적 조건이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이라는 측면에
 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
 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의 인정과 공정
 은 개인지향과 집합지향 각각에서 인간 관계를 규율
 하는 주요 덕목으로 상정된 것으로서, 사회 문화적
 수준에서 문화에 따라 개인지향 또는 집합지향의 정
 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간의 차이는 사
 회학, 인류학, 비교문화 심리학의 영역에서 개인 주
 의와 집합주의라는 용어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이미
 언급하였듯이 분배정의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화적
 특징에 따라 분배원칙의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
 져 왔다. 그러나 도움행동의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수준에서의 비교연구가 결여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문화적 특성이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의 선
 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장성수 등(인쇄 중)의 연구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비록 국가 간의 비교
 는 아니나, 한국에서 개인지향적 지역으로 볼 수 있
 는 대도시(서울)와 이에 비해 집합지향적으로 간주
 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피험자들을 표집하여 본

연구에서 조망을 측정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
 다. 그 결과 서울이 농촌보다 공정을 중시하고, 농
 촌이 서울보다 인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역간 차이를 도움
 행동과 관련하여 알아보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입각해 보면 서울과 농촌에서의 도움행동의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상기한 맥락에서 볼 때, 도움행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문화
 권에 일반화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도
 움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이 대체로 개인지
 향적인 서구의 산업사회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점을
 유념 하여야 한다. 예컨대 곤경에 대한 당사자의 책
 임소재가 도움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는 수많
 은 연구결과들(예, Berkowitz, 1969; Ickes & Kidd,
 1976; Meyer & Mulherin, 1980; Schopler & Mattew,
 1965; Weiner, 1980)이 집합주의적 문화권에서는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이 보답할 수 없는 도움에 대해서는 도움
 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결과(예, Mauss, 1954),
 또는 주어진 상황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조건에서는 심리적으로 반발(reactance)하게 되어
 타인이 자신에게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상(Berkowitz, 1973)들도 이들 연구들이
 수행된 사회가 개인지향적 문화권이었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주의에 기
 저하는 중요가치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점(Lukes, 1984)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된다. 그러
 나 개인보다 소속집단의 목표, 규범등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상기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도움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
 은 사회문화 수준에서의 외적타당도가 문제될 수 있
 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대한
 문화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논할 수 있는 측면은 개인의 도움행동을
 이해, 예언하기 위해서는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에서
 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인차 요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Triandis 등(198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지론되어온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문화간 차이를 기술하는 용어로 적절하지만 이를 개인 수준에서 개인차를 기술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즉, 동일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차는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의 개인 지향 또는 집단지향에 따라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사회문화적 수준에서의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대응하는 개인 수준에서의 차원으로서 "자기중심(idiocentrism)-타인중심(allocentrism)"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개인차 요인과 도움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제안한 차원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개인지향과 집합지향과 같은 성질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이러한 개인차가 도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움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어온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에서의 개인차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인 지향과 집합지향을 조작, 측정된 것이 아니라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기한 의의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장성수 등, 인쇄중)에서 심리적 조망과 개인지향 또는 집합지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험자들을 측정하여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의 피험자들을 선발하여 두 조망 집단에 따른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을 알아 보았다. 예를 들어,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각자가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과 한사람이 전액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 각각에 대한 정의(justice)를 판단하게 하였던 결과, 공정조망의 피험자들은 전자(각자 지불)를 후자(혼자 지불)보다 정의롭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정조망의 피험자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개인차로서의 심리적 조망은 피험자들의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에서의 개인차와 상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한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에서의 개인차 요인을 고려해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문제시 되었던 성차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의존도(시혜자가 수혜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남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던 바, 남자는 여자와 달리,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오히려 덜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Enzle & Harvey, 1979; Schopler & Matthews, 1965). 이는 도움행동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연구결과 중에 하나로 지적되었던 것이다(Davidie, 1984).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남성성의 특성(예, 자기주장적, 경쟁적 등)이 개인지향적 성질이며 여성성의 특성(예, 의존적, 협동적 등)은 집합지향적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쉽게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개인내적 수준에서는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이 특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도움행동의 결정 요인도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내 수준에서 개인지향 또는 집합지향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다를 수 있다는 증거는 Giuliano와 Wegner(1981)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개인의 주의(attention)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자기자각(self awareness)"조건과, 자기 자신과 공동 작업자 모두가 함께 주의의 대상이 되는 "집단자각(group awareness)"조건을 지울을 통하여 조작하여, 전자에서는 형평원칙이 선호되고 후자에서는 균등원칙이 선호됨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 자기자각과 집단 자각은 각각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에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황에 따라 개인지향과 집합지향이 다르게 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장성수(1988)의 연구에서 집단응집조건과 비응집조건을 실험상황으로써 조작하여 이에 따른 분배원칙 선호를 검토하였던 결과, 예언하였던 바대로 전자에서는 균등원칙이 후자에서는 형평원칙이 선호됨을 밝혔다. 이 때 집단응집조건은 집단간 경쟁을 하여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단내 구성원이 협동해야하는 공동운명조건으로 조작하였고, 집단비응집조건은 집단내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타집단 구성원과 경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이었다. 즉, 전자는 집합지향 조건이며 후자는 개인지향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상황에서의 개인차요인으로서 인정조망과 공정조망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개인지향 또는 집합지향적 특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나에 따라 도출행동을 이해, 예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장성수 (1988). 형평분배와 균등분배에서의 불균등과 불형평의 효과: 집단응집성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4(1), 403-437.
- 장성수, 이수원 및 정진곤 (인쇄중).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논총*.
- Adams, J. S. (1963).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422-436.
- Bar-Tal, D., & Raviv, A. (1982). A cognitive learning model of helping behaviour development: Possibl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Berkowitz, L. (1969). Resistance to improper dependency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283-294.
- Berkowitz, L. (1972). Social norms, feelings, and other factors affecting helping and altru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73-106.
- Berkowitz, L. (1973). Reactance and the unwillingness to help others. *Psychological Bulletin*, 79, 310-317.
- Berkowitz, L., & Daniels, L. R. (1964). Affecting the salienc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norm: Effects of past help on the responses to dependency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275-281.
- Clark, M. S. (1981). Noncomparability of benefits given and received: A cue to the existence of friend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375-381.
- Clark, M. S., & Mills,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Dovidio, J. F. (1984). Helping behavior and altruism: An empirical and conceptual overview.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362-415.
- Enzle, M. E., & Harvey, N. D. (1979). Recipient mood states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284-291.
- Gergen, K. J., Ellesworth, P., Maslach, C., & Seipel, M. (1975). Obligation, donor resources and reactions to aid in a three

- natio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90-400.
- Giuliano, T., & Wegner, D. M. (1981). Justice and social awareness. Presented at symposium: *Justice as a pervasive theme in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August.
- Gouldner, A.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61-178.
- Homans, J.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Hundeide, K. (1985). The tacit background of children's judgements. In J. V. Wertsch (Ed.), *Cultur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Vygotski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kes, W., & Kidd, R. F. (1976).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helping behavior. In J. H. Harvey, W. Ickes, & R.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1). Hillsdale, NJ: Erlbaum.
- Karylowski, J. (1982). Two types of altruistic behavior: Doing good to feel good or make the other feel good. In V. J. Derlega & J. Grzelak (Ed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Theories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 Lerner, M. J. (1975).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19.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fundamental delusion*. NY: Plenum.
- Leung, K., & Bond, M. 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793-804.
- Lukes, S. (1984). *Individualism*. England: Basil Blackwell.
- Mauss, M. (1954). *The gift: Forms and functions of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Glencoe: Free Press.
- Meyer, J. P., & Mulherin, A. (1980). From attribution to helping: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 and expecta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01-210.
- Mills, J., & Clark, M. 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everly Hills: Sage.
- Schopler, J., & Matthews, M. W. (1965).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causal locus of partner's dependence on the use of interpersonal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609-612.
- Sherif, M. (1961). Research on intergroup relations.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Inc.
- Tajfel, H. (1978). Interindividual behavior and intergroup behavior,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Inc.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 Clack, F. (1985). Al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urner, J. C., Brown, R. J., & Tajfel, H.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187-204.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 W. (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51-176.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 Bacon, Inc.
- Weiner, B. (1980). May I borrow your class notes?: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achievement-related con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 676-681.

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89. Vol.4, No. 2, 129-145

The Determinants of Helping in the Fairness Perspective and the Fraternity Perspective

Sung-Soo Chang and Heon-Nam Lee

Han Yang University

In the previous study (Chang, Lee, & Chung, in press), two kinds of justice perspectives, the fairness perspective and the fraternity perspective, were proposed to explain cultural, individual or situational differences of justice judgements. Proceeding from their stud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contrast two kinds of helping: helping from the fairness perspective and the fraternity perspective. It was proposed that the would-be recipient's responsibility for his/her own need and the intimacy between would-be helper and recipient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helping from the fairness perspective and helping from the fraternity perspective, respectively. To contrast the characteristics of two kinds of helping, following two hypotheses were tested. (1) People taking the fairness perspective will help less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need than those who are not, regardless of their intimacy. (2) People taking the fraternity perspective will help others in need regardless of the others'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need, but this unconditional helping will be restricted to their friends. The hypotheses were tested by the perspectives(2) X intimacy(2) X responsibility(2) between subjects design with measure of helping obligation: subjects taking the fairness perspective or the fraternity perspective were selected from (N=108) among two hundreds undergraduates by measure of sensitivity of fairness and fraternity, using same method of the previous study (Chang et al, in press). The intimacy(friend vs. stranger) and the responsibility(high vs. low) were manipulated in hypothetical need situation. Supporting all the hypotheses, the predicted 3 way interaction was significant. The possible limitations of som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helping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perspectives were discussed.